

문명사적 전환기와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이 상 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2년에 전국 97개 대학 총·학장들이 모여 자율적인 대학협력기구로 출범시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재 194개 회원 대학의 연합체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회원 대학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보급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한 대학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평가를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수많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대학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역할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는 지식의 창조와 확산의 사명을 가진 대학에 대해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며, 그 토대 위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여나감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원천지식을 창조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각 대학은 건학 이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학과를 재구성하고 지원을 집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화는 결국 대학의 다양화로 이어져, 대학입시의 과열 경쟁을 부추겼던 대학간의 서열 구조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학의 특성화는 대학의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에는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자기 통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자율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각 대학의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한국대학교육협회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각 대학의 특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도 대학의 자율성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회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의 건승과 대교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영**

대학이 자기 통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자율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주

강원대 총장, 울산대 총장, 한림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